로컬뉴스

김제농협 부녀회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 큰 호응

김제농협 부녀회(회장 박승님)는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가져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제농협(조합장 고성곤)이 후원한 이 행사는 7월 27일 검산동, 요촌동을 시작으로 8월 9일 교월동, 8월 12일 신풍동, 부량면, 8월 24일 죽산면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쳤다.

반찬나눔 행사는 김제농협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 중 하나로 매년 동면별 부녀회에서 직접 반찬을 조리해 끼니를 거르기 쉬운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초수급가구,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60여명의 마을부녀회장이 반찬나눔 행사에 참여하여 시원한 여름 김치를 담아 240여 가정에 직접 전달하였다.

고성곤 조합장은 부녀회를 통해 실시한 반찬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부녀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부녀회와 협조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나눔이 넘치는 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서림지구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중점 단속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는 최근 이륜차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지도계도와 단속 및 적극 홍보에 들어갔다.

서림 지구대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시 사망률이 착용시 사망률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큼에도, 최근 무더위로 인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률이 낮아지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것이다.

강종삼 지구대장은 "배달업체 관계자·운행자, 이륜차 운행하시는 어르신 상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대형 화물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도 펼쳐 '교통사고 없는 지역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교월동 통장협의회 영화 '인천상륙작전' 단체관람

김제시 교월동 통장협의회(회장 이춘구)는 25일 김제지평선시네마에서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단체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연일 계속된 무더위에 지친 통장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난 2013년 개관한 이후 김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김제지평선시네마'를 통장님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유명배우 이정재, 이범수 및 리암니슨 등이 주연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실감나고 화려한 영상의 바다에서 두시간여의 시간을 보낸 통장들은 한결같이 "멀리가지 않고도 이렇게 시원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대도시와 똑같이 개봉하는 최신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좀 더 자주 지평선시네마를 찾아야겠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영화관을 나섰다.

강해남 사무장은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운영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과 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안내와 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읍시, 죽림터널 개설공사 착수

사업비 90억 투입… 2017년 9월까지 공사 완료후 전면 개통 예정

죽림터널 개설공사는 연지동 샘골다리 앞에서 상평동 용흥마을과 정읍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이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90억을 투입해 터널 215m를 포함한 연장 540m, 폭 13m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2017년 9월까지 공사 완료 후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죽림터널 개설을 위해 편입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6월 공사발주, 시공업체 선정과 시공측량,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 등을 가진 바 있다.

현재는 사업부지 내 입목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월부터는 터널갱구 형성 및 용흥마을에서부터 샘골다리 방향으로 터널 굴진(발파)을 시행해 내년 4월까지는 터널을 관통할 예정이다.

시는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지역주민과 가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터널 시공 전 발파 영향권 안에 있는 가옥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터널갱구에는 방음문을 설치하는 등 터널 시공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터널 내부에는 샘골터널 보다 50cm가 넓은 폭 2.5m의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가 편안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방음벽과 CCTV, 경보시설, 라디오 수신 설비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상평동 용흥마을과 정읍체육공원 주변 지역의 개발 측진과 더불어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읍체육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원활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비용 절감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박람회는 ㈜동아전람이 주최하며 같은 기간 건축 박람회와 홈&리빙페어, 스포츠레저박람회 등 다양한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돼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 자생차, '동아 차(茶)·공예 박람회' 참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홍보·판매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25일부터 28일까지(4일간) 일산KINTEX(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6 동아 차(茶)·공예박람회'에 참가하여 정읍자생차 홍보와 판매에 나선다.

참여업체는 지난 7월 대한민국전통명장(전통명차 부문)으로 선정된 최재필 대표가 운영하는 태산명차를 비롯해 현암다원(정향순), 구절초꿈의향기(황순애)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정읍 자생차의 우수한 맛과 향을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정읍에서 생산되는 녹차와 발효차, 구절초차 등을 전시홍보·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동아전람이 주최하며 같은 기간 건축 박람회와 홈&리빙페어, 스포츠레저박람회 등 다양한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돼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상반기에도 동아차(茶)·공예박람회(5.19~22), 국제차문화대전(6.9~6.12), 부산 국제 차·공예박람회(6.30~7.3)에 참가해 정읍자생차의 인지도를 높였다.

하반기에도 이번 동아 차·공예박람회를 비롯해 광주와 부산에서 열리는 차 박람회에 참가하고 정읍자생차 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센터는 정읍자생차 브랜드 향상과 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수의 전국 차 관련 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다례교육을 갖고 사회단체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가뭄극복 특별 근무

올해 영농급수 문제없어

연일 계속 되는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가뭄 피해에 대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사진) 전 직원들이 가뭄극복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다.

농어촌公 부안지사에 따르면 계속된 폭염과 무 강수로 인해 저수량 50%미만의 저수지가 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가뭄이 장기화 된다면 내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안지사는 용수를 최대한 절약 사용토록 농업인들에게 홍보 뿐만 아니라 저수지별 저수상황에 따라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요일, 지역별 제한급수와 야간급수를 펼치고 있다.

또 관내 양수장 66개소를 비롯하여 양배수장 2개소, 대형관정 17에 긴급정비에 들어가 청호저수지와 고마저수지는 하천에서 하루 18만 톤씩 양수작업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벼농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병수 부안지사장은 "금년에도 풍년 영농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용수는 농업인들의 생명수이니만큼 절약을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부안지사 관내 저수지(22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48%로 평년대비 69% 수준이지만 금년 영농급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공개경쟁 통해 차기 금고 선정절차 들어가

김제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선정하는 시 금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금고 수는 2개로 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김제시는 지난 24일 시 금고 신청사전 설명회를 열고, 오는 9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접수된 제안서는 10월중 '김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제1금고, 2순위 금융기관은 제 2금고로 선정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 금고를 3년간 책임지고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일인 만큼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기준에 따라 시 금고 선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해상표류자·조난선박 잇따라 구조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안전한 바다 만들기 총력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해상표류자 및 조난선박 잇따라 구조하는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려고 발벗고 나섰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는 25일 오전 4시 20분께 부안군 소재 고사포 해수욕장과 하섬 사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김 모(54)씨를 신속하게 구조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00시 30분께 부안군 변산면 성천항에서 걸어서 하섬 부근까지 들어가 해루질(써치라이트를 이용 맨손 해산물 채취)하고 02시 30께 성천항으로 돌아오던 중 밀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다 때마침 발견한 어업용 고무튜브를 타고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관리선 A호(0.77t, 승선원 1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100톤 급 경비정을 급파해 오후 12시 50분께 위도 대리 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했다.

조성철 부안경비안전서장은 "최근 성어기를 맞아 조업선박과 레저활동이 늘면서 각종 해양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출항 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조업 또는 레저활동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안 해경은 지난 4월 개서 이후 지금까지 관내 해상에서 19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안=이옥수기자

을지연습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정읍시, 시 공무원·제8098부대 4대대 장병 등 850여명 참여

정읍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3박4일)까지 철통안보와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16년 을지연습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을지연습에는 시 공무원을 비롯해 제8098부대 4대대 장병과 정읍경찰서 기동 타격대, 교통경찰, 정읍소방서 현장 대응단, 시 여성민방위대원, 해병전우회 회원,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 민방위 강사 등 85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최근 북한의 잦아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는 도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비, 사태별 실제훈련과 도상연습을 대폭 강화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성공적인 을지연습을 위해 지난 9일에는 지역 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을지연습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을지연습 설명회와 을지연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실제훈련으로 지난 24일 제402차 민방공 경보사이렌을 신호로 전개한 '정읍역 폭탄 테러 대비 및 화재진압 훈련'을 시작 시나리오 없이 진행했다. 훈련에서는 아군을 가장한 무장테러범이 열차운행을 교란할 목적으로 정읍역 승강기를 폭파하고 2층 역무실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역무원을 인질로 삼아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기동타격대와 제8098부대 4대대 무장병들이 출동하여 테러범 진압작전을 펼쳤다. 소방 현장대응단은 펌프차로 화재진압과 사상자 구조에 나섰으며, 부상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교육은 여성민방위대가, 교통통제는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각각 참여해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시는 또 새로 신설된 도상연습으로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 기반시설 피해 발생'과 '혈액공급 차질에 따른 채혈 명령 시행'에 대해 각 기관·단체별 임무를 부여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사례관리자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설명회,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 희망자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신청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 읍·면·동 순회 홍보

유형 1과 2로 나눠 신청 접수

김제시(시장 이건식)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3일간)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경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이 함께 지원돼 3년간 유지 시 720만원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순회 홍보는 김제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사례관리자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설명회, 질의응답 및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 희망자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신청 가입이 가능하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우며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자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